朝鮮日報
第二夕刊
十五日(木)
本紙夕朝刊十二面

對日禁輸案의審議 米上院、延期키로決定

피트만委員長은依然通過有望視

【華盛頓十四日發同盟】 對日禁輸案을 討議한 十四日의 上院外交委員會는 開會한지 한時間이 못되어 散會된바 對日禁輸案의 審議는 無期延期가되엿다 散會後 피트만委員長은 다음가치말하엿다 『外交委員會의 委員中에는 對日禁輸案의 內容을 詳細히 모르는者가만흔데 이問題에關한 諸提案을 檢討하기爲하여 更히 時間을 要求하고잇스므로 對日禁輸案의 正式審議는 當分延期하기로되엿다 委員會는 今期議會閉會까지에는 對日禁輸案을 可決하게될것이다 그러나 그討議에對하여는 아직무엇이라고 말할수업다』 一方禁輸案에 反對하는 코나리上院議員은 同日의 外交委員會의 模樣에關하여 『空砲二、三發을노코 後退하엿다』고 說明하엿다 (寫眞은 피트만氏)

【華盛頓十四日發同盟】 上院外交委員會는 十四日 對日禁輸案의 審議를 當分延期하기로 되엿다 委員會로서는 國內의對日禁輸論者의立場을考慮하는同時에 日本에對한 威脅의意味도잇서서 禁輸案은 아직 上院의手中에잇고또 그討議는 언제라도 開始할수잇다는 立場을 取하고잇다 그러나 上院에서도 政府當局의 態度를 어느程度反映하여 愼重한 態度로 이問題에對處하고잇슴은 疑心할수업고 反日派의 支那侵略非協力委員會ITR(太平洋問題調査會)其他諸團體의 運動도그다지 効果를 보지못한것을보이고잇는것이다 即對日禁輸論은 아직決코 一般輿論으로서 結晶된것이아니고 政府當局의 論議會의 空氣도 自重에기우러진模樣이다

米海軍擴張修正案 下院委員會를通過

【華盛頓十四日發同盟】 下院海軍委員會는 지난一月三十一日 十三億弗 大海軍計畫의 海軍大擴張原案을 否決하고 그代身六億五千五百萬弗 二個年計畫의 修正案을 暫定的으로 採擇하엿는데 右修正案이 十四日의 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써 可決되엿다 海軍委員會를通過한 修正擴張案內容은 다음과갓다

一、戰鬪艦艇二十一隻新造

一、補助艦艇二十二隻新造

一、海軍航空兵力을 三千機에서 四千五百機로擴張

그리고 뷘손委員長은 右修正案이委員會를 通過한後 修正案의審議經過에 關하여 다음가치 말하엿다

海軍當局은 六個年十三億弗의 原案을 依然主張하엿스나 委員會로서는 爲先二個年計畫六億弗로써 海軍擴張을하고 將來必要한時期에 適宜히 擴張함이得策이라고 생각하엿다

芬蘭軍激戰

【헬싱키十四日發同盟】 芬蘭軍司令部十四日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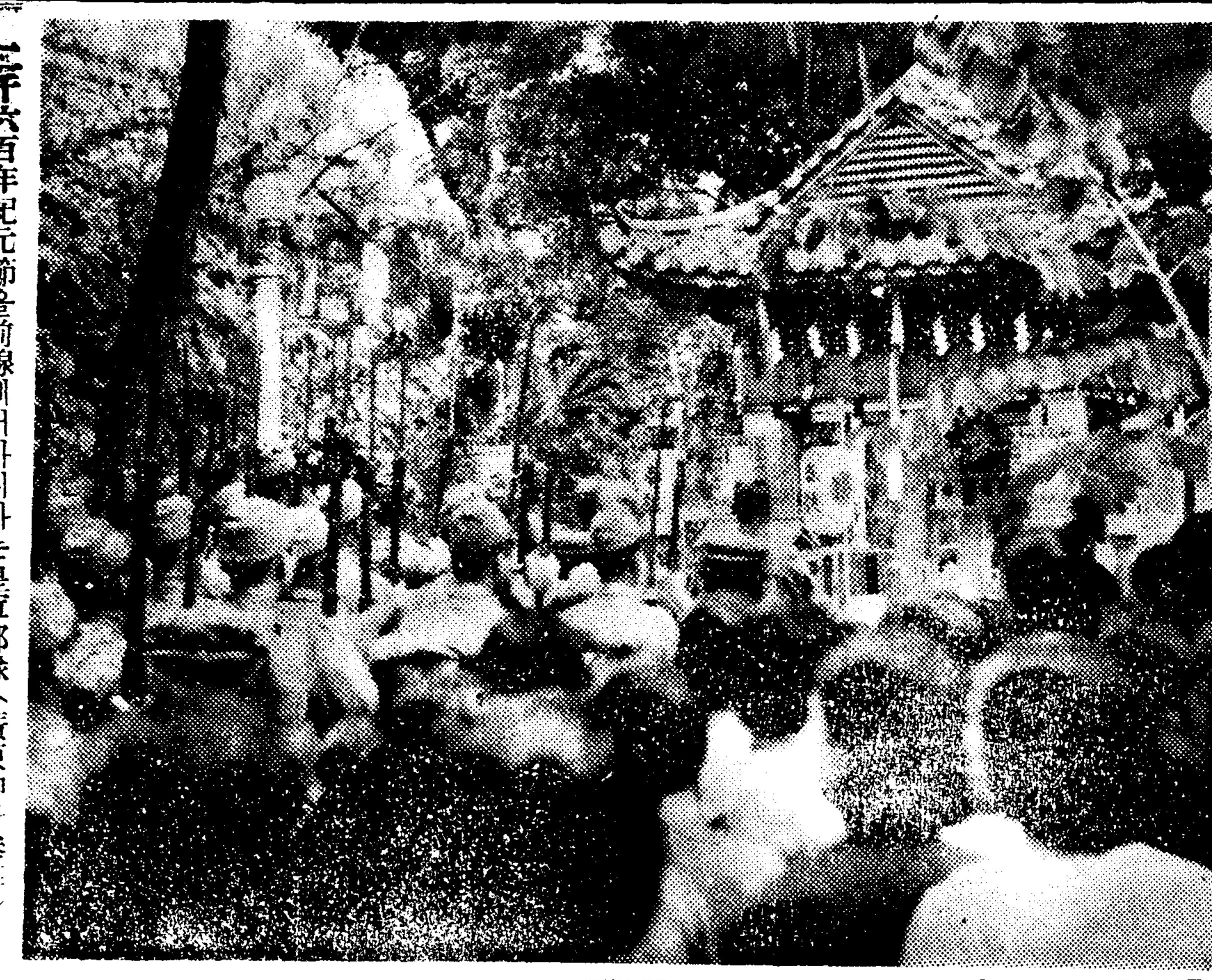
一、陸戰에잇서 카렐리아地方라도가湖東北地區等에서 蘇聯軍이 다시攻勢에나와잇는데 我軍은 이를擊退 蘇聯軍은 數千의死體와 數十의탕크를 遺棄하고 敗退하엿다

一、海上에서는 蘇聯軍은 二個部隊가 氷上으로來襲하엿는데 我코이뷔스트海岸部隊는 이를擊退하엿다

一、我空軍은 十三日蘇聯軍集結地를爆擊하엿는데 蘇聯空軍도 라치롤고、헤이노라、뷔롤그等 諸都市를 空襲 이때문에非戰鬪員多數가 死傷하고 또 火災를이르켯다 十三日中의敵機擊墜數는十七機이엇섯다

蘇聯邦米國에 機械類大量發注

【紐育十四日發同盟】 最近蘇聯의對米物資買付가 問題化되고잇는데 이때蘇聯은 十四日 米國의商社에對하여 大量의注文을 發하엿



二千六百年紀元節을前線에서마지하는皇軍部隊(廣東神社參拜)

貿易省設置보다 各省間連絡이必要

衆院豫總에서外相答辯

【東京電話同盟】 十五日의 衆議院豫算總會는 午前十時三十五分開會된바 池田秀雄氏(民政)登壇 貿易省設置에關한 政府의方針如何

藤原商相 將來는 貿易省이必要하다고 생각하나 今日의貿易狀態로보아 도리어 이를阻害하는 逆作用도 업다고할수업다 政府는 于先 石炭電力資材의供給이 焦眉의 急을要한다고생각하고 摩擦이만흔 貿易省設置는 時期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池田氏 各省間의 手續煩瑣로하여商機를 逸함을改善하려는데 이方面 專任閣僚를 가진다는 것이設置理由엿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商相 現在의制度로서는各省內의 連絡疏通을꾀하여 事務의圓滑을期하여 國民에게 損을주지안켓다

有田外相 貿易省에關하여는、貿易振興이 目的이므로 省의設置로 貿易이 改善될지 어떨지 또其他問題도잇서서 貿易省이되어도 잘되어갈지 어떨지 研究를要하는것이다

池田氏 外務省으로부터 通商外交의機能을 剝奪하라고는말하지안으나、貿易의實際에當하는 商工省이 一人의手足도업시貿易의 振興에當하는것은 果然無妨할것인가 外務省은 海外貿易事務를 商工省의 貿易事務官에 任하게하도록하는생각은업는가

外相 權限爭奪은 그만두지안으면 안되는데 各省이 모두그權限內에서 될수잇는일을 하려는것은 官吏의義務이다 同時에 그 熱心은 차라리 獎勵할것으로 다만 度를지나치지안토록 注意하지 안흐면안된다 商務官으로부터 貿易事務를 除外할수는업스나 一方으로 經濟外交를 하여가는陣容을 整備하는同時에 外國經濟外交의 步調를 不一致하게 되지안토록 注意하기 바란다 各省間及各省과 業者와의 連絡協調를꾀하여 圓滑히해가고저한다 今日의貿易은 單只國內問題가아니라 빼러制其他外國과의交涉에依하는點이 만흐므로 이點이 貿易省設置에依하여도 果然解決할수잇는가업는지 研究를要한다

池田氏 國策으로 綜合的링크制를實施할생각은업는가

商相 링크制와 統制經濟施行의手續는 너무繁雜하여 運用이잘되지안어 所期의効果를 엇지못하는點이잇다 圓블럭輸出에對한 링크制施行도 効果는잇슬것이나 圓블럭輸出에는 課稅制度其他 여러點을생각하여 輸出의調整輸入의 增加를 아울러생각하여 愼重히 研究해가려한다 이로써 池田氏의 質疑를 마치고 政府側의形便(貴族院秘密會)으로 十一時三十三分 一旦休憩 同五十五分再開하엿던바 政府의形便으로 다시休憩하엿는데 午後一時再開豫定이다(寫眞은有田外相)

006479

深刻한電力飢饉 當局措處粗漏에基因

(安場氏論難)

【東京電話同盟】 十五日의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四十九分開會된바 支那事變處理에關한 諸問題說明으로 直時秘密會에 들어갓다 午前十一時四十六分 秘密會를 마치고 日程에依하여 國務大臣演說에對한 質問을續行 安場保健男(公正) 第七十三議會의 電力國家管理問題의 審議狀況에對하여 說한後 電力飢饉은 旱魃에만依한것이아니고 石炭問題를 爲始 當局의 措置가 粗漏하엿던때문이다 遞信當局의 責任도 回避할수업는것이다 政府는 發電의 年四分의一 假定電力을 豫算에 計上하엿다 그리고 이미實行에옮긴것도잇스며 綜合的調査를進行시키고잇는 遞相 電力國家管理는 他에 準備가 整備되지못하엿슴은 遺憾이다 渴水에 許可업시도 剩餘가 잇스면서 石炭購入에 何故로 努力하지 안는가 發送電에 大藏商工各省出身者를 더넣어서 運用의 萬全을 期하여야한다 依託石炭入手의 努力은 認定하는 바이나 今日의 石炭需給에 비추어 水力開發을 促進하여야한다 따라서 河川의利用은勿論 努力세멘트鐵材等의 優先配給을 必要로하는데 各省의協力을 希望한다

遞信當局의 責任을 回避하려는 意思는없다 그러나 非常한渴水는 考慮해주기를 바란다 四百七十萬瓩을 入水하여야할當初의 計畫을 不得已 變更하게되어 可及的 努力을 하엿스나 監督官廳도 發送電도 可及的 努力을 하고잇다 水力에 依한 電源開發은 關係各省과 協力하여 萬全을 期하고잇다

安場男 電力不足은 發送電命令이 느저진데 一原因이잇다고생각하는데如何

平井出電氣廳長官으로부터 說明하고 水力、火力發電에對하여 大河內輝耕子(研究)가 發言을求하여 衆議院豫算總會席上 遞相의石炭手當不足에關한 責任의言辭를問題삼아

大河內子 日本發送電에 責任이잇다고하는데 그러면結局遞信當局에責任이 미칠것이다 이때遞相의明瞭한言明을求한다

遞相 責任問題에 미친다하면 職務를 다하여 겨울이하면는지 그責任을 잘調査한後가아니면 무어라말할수업스나 石炭入手에對하여는 發送電의自由手腕에맷기고 遞信當局은何等指示하지안엇다 구레어責任을말하면 石炭手當에 對하여 發送電에 그點이잇는듯하다 이리하여 國務大臣演說에對한質疑를 全部終了하고 午後零時三十分散會하엿다

豫算總會 又復延長

【東京電話同盟】 衆議院豫算總會는 三日間延長하엿는데 아직도 多數의質問者를 남겨 十五日까지에 終了치못하겟스므로 結局十六日까지 이를延期하여 同日로써 質問을맛내고 十七日부터의三日間 審議를 續行하여 十八(日曜)、十九 質問을終了할豫定이다

威海衛靑島間航行禁止

十五日我最高指揮官布告

【靑島十五日發同盟】 北支方面艦隊는 十五日부터 一切船舶의 靑島에이르는 威海衛로부터 東半島沿岸의 出入을禁하기로되어 十五日 最高指揮官의名義로 左와如히 布告를發하엿다 昭和十五年二月十五日以降特令이잇슬때까지 一切의 船舶은 山東半島의 威海衛(不包含)에이르는사이의 島(不包含)로부터靑 東半島沿岸의 出入을禁止함

昭和十五年二月十五日

大日本北支方面艦隊 最高指揮官

獨蘇軍事同盟說

英官邊、獨側宣傳으로解釋

【倫敦十四日發同盟】 獨蘇兩國은 지난十二日에新通商協定成立을發表하엿는데이와前後하여 코펜하겐有力側으로부터 獨蘇兩國이이미 스칸디나비아、빨칸近東方面의 戰局이擴大될時 兩軍陸軍의協同作戰을 目的하는 秘密防禦同盟을 締結하엿다는 報道가들어와서 倫敦政界에 相當한反響을일으키고잇는데 英國官邊에서는 獨逸側의 宣傳에 不過하다고 左와如히말하고잇다 獨蘇防禦同盟締結說은 伯林消息側으로부터 어든 中立國의情報인데 지난十三日發表된獨蘇新通商協定의 効果를海外에誇大하게 印象주려는 獨側의宣傳으로도보인다 獨蘇兩國間에 英佛軍事協定이 完全한 形態를가지고 實施될 可能性이 全然업다고는할수업스나 設令實現한다하여도 가까운將來에 實現되지안흘것이다 (寫眞上 히틀러 下 스탈린)

遷都準備次 褚民誼氏南京에

【上海十五日發同盟】 汪精衛國民黨中央黨部秘書長 褚民誼氏는 十五日午前八時 上海發急行으로 京으로向하엿는데 이것은 新中央政府가 再次南京에 歸還하기爲한 準備機關인 還都籌備委員會의 本格的業務에 邁進하는것으로 遷都에必要한 家屋什器其他一切 新中央政府樹立의 具體的工作整備에 着手할려이다

拉致獨人九名引渡

十四日英官邊側에서言明

【倫敦十四日發同盟】 淺間丸으로부터拉致된 獨逸船員 二十一名中九名을 日本官憲에 引渡할 것에關하여 英國官邊에서는 十四日午後左와如히 言明하엿다 淺間丸으로부터 拉致된 獨人中九名을 日本官憲에 引渡할 時期와方法은 벌써 크레기大

英佛援芬積極化

英國民芬軍參加許可

【倫敦十四日發同盟】 蘇聯의芬蘭攻擊이 本格的이되엇스므로 英佛의 對芬援助도 漸次積極化하여왓다 十四日英國政府는 英國國民의 芬蘭軍參加에 一般的으로 許可를 주는同時에 倫敦에 設立된 義勇兵募集事務所에 對하여도 許可를 與하엿다

英國義勇兵第一陣 ……義勇兵九十六名은 芬蘭義勇兵으로서 英國大義勇軍士로서의 基礎的訓練을 바뎟는데 十四日朝 光頭를 돌니고 어二千六百名의 滿洲義勇兵……元二千六百年初의 ……訓練所를 떠나 午前十時三十五分 內原訓練所……

下에 滿洲의希望에 차서……隊는 正午東京驛에 下車하여 明治神宮에 十四名을 先頭로 二隊에分하여 一隊는 ……前에 行進하여 宮城遙拜 十七日新 寫隊는 ……隊伍堂堂히 芝增上寺에 參拜하기 어가 ……依하여 十八日敦賀出帆 日本海丸及 後十時四十五分 東京驛發列車로 滿洲하기 로되엇다 ……이베리아丸으로 渡滿하기

滿洲中銀總會

【新京十四日發同盟】 滿洲中央銀行에서는 十四日午後三時부터新京本店에서第十五期株主總會를開催하고 經濟部大臣代理 ……官、銀行側으로부터 ……出席하여 決算報告及利益金處分案(配當年六分)을 附議可決하엿다

獨赤十字總裁一行

【新京十四日發同盟】 獨逸赤十字社總裁 에드워드·코불크公은 隨員二名 從者一名을 帶同하고 訪日途中 十四日午前七時五十四分 大連으로부터 新京着列車로 來京하여 大使館을 訪問 新京發列車로 一路 訪日의길에 올랏다 少憩한後 獨逸公使館其他를 訪問하고 當日午後六時五十分 新京發列車로

滿蒙開拓靑少年義勇軍出發

【東京電話同盟】 滿蒙開拓靑少年

英、商船沈沒頻頻

十四日北海附近서二萬餘噸

【倫敦十四日發同盟】 十四日倫敦에 達한 遭難商船事件은 다음과가튼바

一、油槽船그레곤(一萬一〇一噸)는 十四日 의 東北에서 沈沒

一、英汽船에 유로라이아一萬餘噸(八、四〇二噸)는 十四日北海에서 獨潛水艦에게 擊沈되엇다

一、덴마크汽船챠스라인매엘스크號(五、一一七噸)는 諸威海岸에서 約百三十浬의沖에서 擊沈되엇다

獨潛水艦一隻擊沈

【倫敦十四日發同盟】 英國海軍省發表 十四日 풀스타ー會社 英北米航路 산란스타ー號(一二、三〇四噸)가 獨潛水艦에依하여 비스케이灣北部에서 擊沈되엇다 그리고擊沈하여온 潛水艦一隻은 英海軍에依하여 이여擊沈되엇다

戶籍屆出法案 貴院委員會可決

【東京電話同盟】 委託又는郵便에依한 戶籍屆出에關한 法律案은 十三日貴族院의 同委員會에서 可決되엇다

米海軍派遣說

케손號遭難地點에

【마닐라十四日發同盟】 케손號遭難事件의 査問委員會는 十三日도 續行된바 오르비아船長은 依然遭難現狀의 暗礁가 海圖에記載되어잇지안타고 主張하고 運航은 海圖의 不正確에 依한것이라하여 自己의責任을 回避하려는態度를 取하고잇는데 十四日 米國系英國紙 므레티레는 右에關하여 米國海軍에 實地調査要求 마닐라 比島所屬의 軍艦을 現場에 派遣하기로 決定하엿다는 奇怪한報道를하고잇스나 오르비아船長은 自己의責任을 回避하려는넘어지 日本國民에對한 어가튼 應恩行爲를 敢히한것은 比島人一般의 無視하는 國民性으로서 特히介在할必要는업스나 我領海附近을 調査하려할과가튼 米國海軍現地當局의 不遜한態度는 不可解한 것으로 在留邦人은 모두憤慨하고잇다

……新이잇서 ……에關하여 目下 現政府側에서 ……中이다 ……는 아마近日中으로 實行될것이다

稅革委員會

【東京電話同盟】 十四日衆議院稅制改正法案委員會는 午後一時十八分開會하여 櫻內藏相으로부터 國稅及 地方稅改正案內容에對하여 說明이잇고 各委員으로부터 資料提出의 要求가잇슨後 午後二時廿七分 散會하엿다

人事·集會

▲古川兼秀氏(總督府保安課長) 咸南國境警察官憩問次出張中 咸南經由二十六日歸任豫定

▲森浩氏(總督府保安課事務官) 大邱에서開催되는外事警察講習會出席次十四日出張十八日歸任豫定

▲湯村辰二郎氏(總督府農林局長) 食糧事情視察次 十五日午前七時四十分 京城驛發 忠北淸州沃川、永同各郡에出張 十六日午後八時二十分 着列車로歸任

▲井坂圭一良氏(總督府商工課長) 十八日午後四時京城驛發大阪東京各地에出張約一個月滯在豫定

▲足立正秋氏(總督府農林局食糧調査課兼糧政課事務官) 新任人事次來社

▲小野寺二郎氏(同食糧調査課技師)同上

▲西阜氏(同)同上

▲黑岩滿氏(同糧政課技師)同上

▲尾崎治氏(同)同上

▲君島一郎氏(朝鮮銀行副總裁) 新任人事次來社

八面錄

◇米國의 對日要求는 『不過二百數十件이라고』 外相 적은 드시 報告。

◇만흐면 얼마나 되엿슬고、有田外相의責任重大를 可知。

◇中立法을 日本에는 適用지안켓다고 헐長官言明。

◇그러나 通商條約의廢棄、海軍擴張의 大計畫、스타크作戰部長의 誹謗은 무엇을意味?。

◇獨逸軍 五十萬이 高加索地方으로 進駐하리라고 土耳其神經過敏。

◇數千里 길에 어찌 大軍을 보내라만。

◇列國의 西比利亞出兵、伊太利의 에티오피아出征等을 생각하면 그마저 못할바도 업서。

◇南鮮北雪로 天地여 오슴바랑。

◇農年이 저야 農民도 살고 軍糧도 넉넉하고 民心이 安定되지。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百補丸會社 一劑十円

第四十三期末 貸借對照表 (昭和十四年十二月三十一日現在)

資產	
現金預ケ金勘定	[illegible]
現金	[illegible]
預ケ金	[illegible]
內朝鮮銀行ヘノ指定シタル預ケ金	[illegible]
コールローン	[illegible]
有價證券勘定	[illegible]
國債	[illegible]
(內手許在高)	[illegible]
株式	[illegible]
公共貸出金勘定	[illegible]
年賦貸付	[illegible]
定期貸付	[illegible]
產業貸出金勘定	[illegible]
年賦貸付	[illegible]
定期貸付	[illegible]
引受債券	[illegible]
商業貸出金勘定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荷付爲替手形	[illegible]
手形貸付	[illegible]
證書貸付	[illegible]
當座貸越	[illegible]
特別貸付	[illegible]
道貸	[illegible]
他店貸	[illegible]
支拂承諾見返	[illegible]
動產不動產勘定	[illegible]
營業用土地	[illegible]
營業用建物	[illegible]
所有動產不動產	[illegible]
雜勘定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新築費	[illegible]
株主勘定	[illegible]
拂込未濟資本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負債	
預金勘定	[illegible]
當座預金	[illegible]
特別當座預金	[illegible]
通知預金	[illegible]
定期預金	[illegible]
別段預金	[illegible]
道預金	[illegible]
借用金勘定	[illegible]
預金部借入金	[illegible]
借入金	[illegible]
當座借越	[illegible]
コールマネー	[illegible]
債券勘定	[illegible]
債券發行高	[illegible]
未拂債券	[illegible]
未拂債券利子	[illegible]
政府諸貸下金	[illegible]
他店借	[illegible]
日本勸業銀行代理店	[illegible]
支拂承諾	[illegible]
雜勘定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未拂利息其ノ他	[illegible]
未經過利息及割引料	[illegible]
受入諸稅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本支店間未達	[illegible]
株主勘定	[illegible]
資本金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缺損補塡準備金	[illegible]
配當平均準備金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當期純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利益金處分	
當期純益金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之ノ處分	
缺損補塡準備金	[illegible]
配當平均準備金	[illegible]
特別積立金	[illegible]
役員賞與金及交際費	[illegible]
當期配當金 (一株ニ付金貳圓五拾錢 年九分ノ割)	[illegible]
新株配當金 (一株ニ付金五十六錢二厘五毛 年九分ノ割)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右ノ通ニ候也

昭和十五年二月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林繁藏
副頭取 渡邊彌幸
理事 金子隆三
理事 山口重政
理事 富永文一
理事 松井彥治郎
監事 原邦造
監事 進辰馬
監事 中富計太

海草에서萬病通治藥達發明

梅毒、淋毒、胎毒、蓮珠瘡 皮風、神經衰弱、頭痛、リユマチス、關節炎、神經痛、中風、半身不遂、動脈硬化症、心臟病、內腫、痰腫、喘息에는

全世界的으로

淸血排毒强壯의二重作用의名藥

日本政府登錄

海草精(해초정)으로

原因療法을하야病뿌리를업새야낫습니다

原原療法으로第一血液을淸血시키고여러가지毒(梅毒、淋毒、酒毒、煙毒、藥毒、體毒)을體外로排泄시키며五臟六腑를補하는데비로소眞正한治療와健康을確得할수잇습니다。在來治療法의缺陷은單只其局部에만作用할藥을使用하여왓스므로藥을使用하여도어면듯하다가再次發하는폐단이만핫섯는데只今世上사람이効力을보아每日가치感謝狀을밧는淸血、排毒、强壯劑海草精은病의根源을쑥빼버리는힘이强大하여누구나服用하는날로其氣分을알수잇스며効力에驚嘆하게됩니다。海草精으로速히貴下의痼疾을곳치소서

海草精을쓰면萬病은消滅된다

해초정(海草精)은괴롬조케하고 여러가지나뿐피(惡血)를업새어서여러가지질환을물리칩니다。더욱오래된병에잘듯습니다。

一、괴롬업게하면서 구미는중진하며정신을듯듯히하고보음보양하는힘이강대하여해초정을늑용중다른보약을복약할필요가업습니다。

一、괴는락하고여러가지독이잡탐한데다산해미(山珍海味)와인삼녹용을복용한데짜모든것이허사이며도로혀(徒勞)입니다。제일괴롬업게하고 여러가지체독(體毒)을배설시켜야신체는건강하여집니다。

해초정(海草精)은괴롬조케하고……

海草精은左記症勢에服用합니다

●괴롬업게하라는사람에●현재약혈(貧血)인하여신경이만흔사람에●매독、임독、태독으로세상에조라는약을다써도신통한효과를못본사람에●무상시로팔、다리、허리、뼈마듸가쑤시고못고제러서고생하는사람에●심장이약하여가슴이울렁거리고장기가잘되는사람에●중풍증에반신불수에●대변이잘통치안코변비가잘되는사람에●전직으로혈덕이는사람에●괴롱가튼부스름으로가렵고잘낫지안는사람에●매년도지는난치병에●유전성으로나타나는고질에●항상두통중으로고생하는사람에●신경쇠약중에●매독이잇는분의자손은대개태독이잇는이해롭나오니임신중미리해초정으로방지하시요。

藥價

輕症用(一個月分) 一瓶四圓九十錢
重症用(二個月分) 一瓶九圓三十錢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

總發賣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振替京城二三〇九八番
電光 四〇六九番

送料三十六錢先金 (說明書進呈)
注文郵料際所負擔

陸軍記念日에 學生、生徒全部參加

지나사변이 이러난 세번째 국가비상시를 마지하는 오는 삼월十일 육군기념일 ... 무국에서는 당일 행사에는 생도의 참가를 ... [illegible]

連日缺勤者多數로 京電은 "半怠業狀態"

게다가 轉業者가 생겨 配車不如意

府內交通難 一層深刻

하루에 평균 삼십오만여명이란 막대한 손님을 날르고잇는 경전의 전차승무원들이 몰끼고 인이 때에 바뀌고 ... [illegible]

"일하기실혀서" 見目京電常務談

너무고단하오 某從業員談

"그릇된兄弟愛"

高壓線墜落 馬公即死

海運의 强力的統制

朝鮮海運統制令今日부터實施

해운통제에 관해서는 사변이이러나자 공업시설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상운수의 조정을 도모하여왓스나 그후시국이 장기전으로 진전됨과 ... [illegible]

府內 十中等學校志願者 約四倍의 競爭率

今日正午現在

봄보다압서오는受驗煉獄의跫音!

	定員	志願者	倍率
京畿中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景福中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南中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畿高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培花高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淑明高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進明高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德高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梨花高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女子商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創氏案內

府에서一般府民에配付

紀元二千六百年記念 貯蓄債券을賣出

中途償還分全部에割增金附與

道名	郵便局所	銀行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물싸움으로殺人

林甲辰의上告審公判開廷

京畿道의貯蓄熱

豫定額一億五百萬圓을超過

	(單位千圓)
銀行預金	七三、九三六
金融組合預金	一一、九四四
東拓預金	四、九一〇
郵便貯金	七、〇二一
無盡掛金	三、六九九
簡易保險	一、四一六
國債及貯蓄債券賣渡高	二、三四〇
計	一〇九、五三三

西界町火災 失火로判明

鐵道電信電話 復舊工事順調

咸鏡線에서 列車顚覆 人命損害幸無

僵屍(四件)

"불딱총"取締 西署管內에서嚴禁

氷上選手權 大會後記 (3) 張日弘

金玄一太

◇男子千五百米

◇男子五千米

渡比東拳歸國

全朝鮮氷上大會 解氷으로中止

關西體育會主催

女子陸上選手決定

陸海軍御指定 最强消毒藥 ハイゾール 石炭酸ノ8倍

住宅地分讓處分 新興建築社

幹部社員募集 日淸生命保險會社

痔疾

洋服

盛業商社讓渡

蓄音機 無代進呈

朝報案內

誰にもわかる氏の解說 大評判!飛ぶやうな賣行!! 綠旗日本文化硏究所編

外科・皮膚泌尿科 同仁醫院 醫學博士 鄭準謨 副院長醫師 鄭萬謨 京城鍾路二丁目

전식 無料로드립니다 百日咳

興亞實務學院 土木科 鑛山科 中等科 教員科

生徒募集 協成實業學校 商業科第一學年 約百名 出願期日 三月十日限 試驗期日 自三月二十日至三月二十四日

東新商業專修學館 生徒募集

中古樂器買入

結核 虛弱體質 劃期的治療劑 ハツモン コメット 大阪市東區 黑田藥品商會

十年間조각편지 朴英鎬 作詞 文湖月 作曲 金鳳鳴 趙白鳥 눈물의半靑春 빅타-레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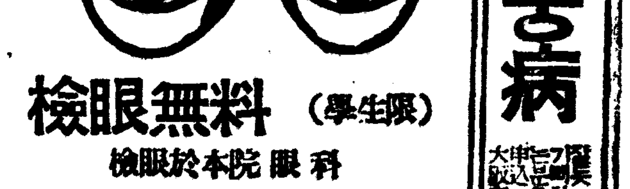
製藥士 養成講義 무슨藥이라도自由로製造 ◇立身成功의門 日本通信製藥學校

藥으로滋味나는돈모으기

大同洋行時計部

矢十字葡萄酒 美味榮養 經濟飲料 絕對防腐 品質保證

三浦外科 醫學博士 三浦良雄 入院病室完備



検眼無料 (學生限)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무릎병

新"小說"의"擡頭" (一〇)

林 和

新文學史

그러면 李人稙에 이어서 第一의 傾向을 代表하는 『雉岳山』 『鬼의聲』 等은 어떤作品인가

먼저 『雉岳山』의 줄거리를 紹介하면 이러하다.

江原道原州에 有名한 雉岳山 밑 단구역말이란 동리에 일홈난 洪參議가 살엇다. 洪參議는 일찌기 夫人을 여의고 後室로 金氏를 마지하여 사는데 前室所生으로 아들하나이 잇고 後室의 몸에서는 딸이 하나 낫다. 아들의 이름은 [illegible]이요 딸은 [illegible]이라하엿는데 백돌은 [illegible] 開化運動家로 [illegible] 李判書집으로 장가들어 李夫人은 [illegible]이라는 [illegible] 다리고 [illegible]

[illegible] 시집살이한다』 이러한것이 當時小說 『雉岳山』에 所謂된 題材이다. 이 問題가운데 登場되어잇는 人物들은 朝鮮在來의 父家長制的大家族制度를 構成하고잇는 거의典型的人物들이라 할수잇고 여러가지 角度에서 相互衝突하고 葛藤의 原因을거의宿命的으로 胚胎하고잇는 關係가운데 서로 聯結되어잇다고볼수가잇다.

爲先 前妻所生과 後妻, 이關係는在來의 家庭小說의 [illegible] 始로 『콩쥐팟쥐』 鄭乙善傳, 薔花紅蓮傳等의 [illegible] 典型化되어 悲劇의 核心이된 關係로서 이른바 [illegible]

[illegible] 이러한 關係가 어째서 하나의 特異한 小說에까지 [illegible]化되고, 그러한 小說의 事件으로서 出發點이 되느냐 하는것은 [illegible] 가 된 父家長的大家族制度의 內的矛盾때문이다.

金台俊氏는 [illegible] 化처럼 생각되는 理由를 다음과가치 說明하엿다.

『家族制度는 夫婦를 單位로 한것이지만 옛날에는 우에 父母를 모시고, 겨혀 누이동생들과 兄弟를 거느려서 그 複雜한 世帶의 一員이되어 한갓 [illegible] 또는 [illegible] 가튼 [illegible] 의 [illegible] 에 [illegible] 하는 主婦로서의 『안해』의存在가 잇을뿐이니 시집사리의苦楚가 [illegible] 한것이 아닌데 더구나 男系社會에잇서서 男便의 地位가 놉고 男便은 [illegible] 한짓을 마음대로하니 안해된 主婦의 不平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이다. 더구나 어찌 어찌되어 [illegible] 婦女가 죽은 前 [illegible] 에 對한 [illegible] 와 男便의 愛情의 分散에 對한 [illegible] 와 [illegible] 女間에 [illegible] 안타하는 [illegible] 은 다음이 날이 갈수록 [illegible] 을 加하야 가정에는 [illegible] 所生의 子女를 加虐하려하는데 이르는 것이니 이것은 거위 우리社會에 [illegible]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illegible] 婦女에게 지워진 實際의 [illegible] 에 比하여 그地位의 [illegible] 한데서 오는 [illegible] 에 가까운 反抗心이 歪曲되어 이러케 發現되는것이다. 그 反抗心을 歪曲하는것은 周知와가치 [illegible] 한 家族制度의 [illegible] 從의 倫理다. 그러므로 家族이 膨脹하고, [illegible] 해 지면 질수록 婦女의 地位는 不利해지고 職責은 加重되여 全혀忍耐키 어려운 狀態에 까지 이르는것이다.

그리하여 며누리를 미워하는 시어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illegible] 한 [illegible] 에 [illegible] 하면 아주 [illegible] 의 方向으로 [illegible] 化한다.

그 [illegible] 인 例가 [illegible] 小說에서 본 [illegible] 所生과 [illegible] 의 葛藤이다. 이것은 며누리를 미워하는 시어미의 [illegible] 한 心理의 한 [illegible] 이라 볼수잇다. [illegible] 自己의 피(血)와 [illegible] 되지아니한 家族에 對한 [illegible] 이다. 웨 그러한 [illegible] 에 [illegible] 이 이러나는가하면 婦女가 [illegible] 을 [illegible] 오직 自己와 血의 [illegible] 로 [illegible] 되어잇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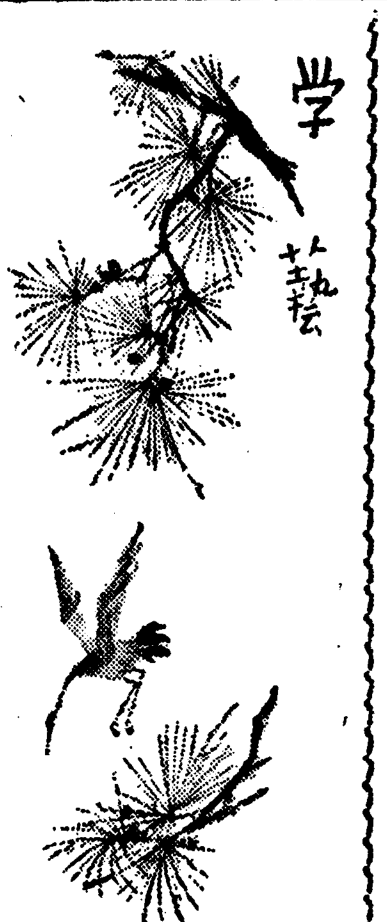
이러한 關係가 傳統的인 [illegible] 小說의 [illegible] 인데 『雉岳山』은 이보다 事情이 좀더 複雜化되어 [illegible] 과 前妻所生의 葛藤과의 葛藤이 主軸이 되어잇다.

이것은 前妻所生과 後妻과의 葛藤에다가 姑婦間의 葛藤을 加味한것으로 葛藤의 度는 [illegible] 小說에서보다 倍以上 深刻化되어잇다. 더구나 그것이 前妻所生의 며누리는 미운데다가 그것이 [illegible] 의 며누리니 미움은 [illegible]

[illegible] 은 [illegible] 小說에다 [illegible] 을 두곳, 家庭小說의 [illegible] 을 비교하다가 그우에 [illegible] 한것으로 家庭을 삼엇다. 이러한 手法은 모두 朝鮮小說의 傳統的構造樣式과 新小說이 [illegible] 하게 關係하고 잇는 [illegible] 다.

또한 이러한 [illegible] 우에 新小說이 [illegible] 되어잇는 그 [illegible] 小說과 家庭小說이 [illegible] 한 社會的土壤과 비슷한 土壤우에 發生한 文學이라는것을 이야기 하는 事實이기도하다.

要컨대 [illegible] 해가는 父家長制的大家族制度의 文學的反映으로서 또한 [illegible] 期에 [illegible] 한 東洋封建社會의 [illegible] 的表現으로서 英正以後의 諺文小說과 直接의 [illegible] 를 가지고잇슴을 意味한다.



喪祭에 對한 再吟味

—"朝鮮祭紀相續法論序說"을 읽고— (二)

鄭 光 鉉

그리고 第三節 『祭祀者』論이다 第一款總說 第一項에서 (1)宗中에對한 論究의必要 (2)宗法의本來의意義及性質 (3)支那의宗法의沿革 (4)朝鮮의宗法의 變遷等에 對한 論述 第二項에서는 (1)別子(諸侯의嫡子의弟)宗法의 概念 (2)大宗別子의本宗及 小宗(別子의 支派)의 意義及性質 (3)大宗小宗의 宗祧繼承法 (4)大宗小宗의 宗族關係 第三項 (一)宗族團體인『宗中』의 概念에서 (1)宗中의意義及起源 (2)宗中의構成과 其名稱 (3)宗中의發生消滅及宗中員의變動 (4)宗約及宗約所定의意義及性質 (5)宗孫의宗中에對한 現行 慣習法上地位 (6)宗中役員(門長 又는宗長)의現行慣習法上地位(其權限) (二)宗中의 種類 (三)宗中의 組織及其權限 (四) 宗中財産의 (1) 意義及 其目的 (2)其法律上性質(現在合有登記에 依한 宗中財産과 從前 單獨乃至 共有名義로 登記한 宗中財産과의 對外的 法律關係의 究明) (3)宗中財産의發生原因과 其目的 (4)宗中財産의 管理及處分等 宗中에關한法律關係를 三十餘頁에 亘하야 論述하얏고 第四項에서는 (1)祭用의資源인 『位土』의意義及種類 (2)位土設定의 史的考察 (三)位土의管理及處分 (四)位土의分配 (五)位土의所有權者에對한論述 第二款 『祭主論』에서 (一)正嫡의祭主 (二)喪禮의祭主와 兄亡弟及의 繼承의沿革 第三款乃至第七款에서 『現時의祭祀形態』인 (1)婦人主祀 (2)攝祀(祭祀의代行) (3)侍養子奉祀 (4)外孫奉祀 (5)出嫁女奉祀 (6)宗族의 祭祀參與와 隣地의宗族의假祭 及祭祀續行의遺風 (7)最長房遞祀(代數祀)等에 對한 論述이다.

五

그리고 第四節『祭儀』論 第一款 總說에서 (一)宗廟(王室의 祠廟)制의史的考察 (二)家廟(臣下의祠廟)의 起源 (三)家廟의 構造 第二款 家廟의 方位와 立者論 第三款 家廟設置(祠堂) 第四款『墓祭』 이라는用語의 各種祭儀

第五節『祭饌』論에서는 (一)各種家祭에對한 槪括的說明과 (一)春夏秋冬四季에 行하는 四時祭(祭日 其準備行事 祭與式次等) (二)初祖祭 先祖祭 禰祭(父祭) (四)亭祭者의死亡日에行하는 忌日祭 (五)每月朔早朝에行하는 朔望單祭(朔奠) (六)四時祭外에 正朝 上元 寒食 三辰 端午 秋夕等의令節에行하는 俗節薦新祭 (七)每早朝에行하는 晨謁及外出時에行하는 出告 (八)墓祭等에對한 個別的說明으로 第六五○頁에 亘한 本論의 叙述을終結하엿다.

그리고 附錄으로 祭祀와相續의慣習을 엿볼수잇는 옛날의 由緖잇는 遺書 七篇과宗會規則 四通(韓山李氏 淸州韓氏 東萊鄭氏 全州李氏等)을 收錄하여 參考에 供하고잇고또卷末에는 詳細周密한 五十音順의 事項索引이 添附되어 本書閱覽上의 便宜를 圖謀하고잇다.

氏에게는 多年間이方面에關하여 許多한 論文을發表해오든中 比較的最近의것으로는 (1)『庶母의身位』(本書二四二頁) (2)『墳墓의 慣習에關한 朝鮮의慣習』(本書三七一頁乃至四○二頁) (3)『朝鮮의 慣習上의 祭祀의承繼』(本書四一九頁以下의 祭祀論) (4)『宗中에關한 法律關係』(本書五○九頁—五四○頁) (5)『位土』(本書五四○頁—五六○頁)等은 本書中의 論述의 內容과 大同小異하다. 卽 字句의補訂乃至論述上 順序의 部分的轉換說明樣式의 簡略等 文章形式上의 差異에 不過하다.

그리고 氏는 아직 아프로 本書의內容과 別差異업는 論文을 繼續하여 發表할것가치 생각되는데 旣往이면 文章上의推敲에만 그치지말고 또更料에만 局限하지말고 氏의涉獵한 參考文獻을 더욱만히紹介하는바 잇기를바란다.

『墳墓의基地』의意義에 對한 所謂『現時의判例』 例에지 여기對한 明示가업스나 그것은 (1) 大正五年十一月七日 高等法院判決(同判決錄三卷八○五頁) (2) 昭和二年三月八日 高判(同判決錄十四卷六三頁) (3) 昭和三年十月十五日高判(同判決錄十五卷一四九頁)等으로 생각한다.

本書三七九頁에서 [illegible] 에 攻究하려고하는 [illegible] 家長即戶主의地位에 [illegible] 는 [illegible] 한바는어 떠한 [illegible] 에 나오지아니할까생각된다. 또野村氏는 本書의 論述은 [illegible] (계속)

旅=行=隨=感

車窓 (五)

李 敬 河

京都 (二)

長崎를올나선 나의마음은 몹시 悄然한것이엇다. 이번은 어떠케서라도 옛날의京都를 차저보고저햇다. 먼첨 생각난것이 京都에잇는 金燕亭이다. 우리時代의 三高生들이 저녁을먹고나면 三三五五떼를지어 熊野神社를 出發하여 寺町丸太町을 지나 京極에들어서자 외만칩 발을 멈추는곳이 바루 이 『레스토랑』이엇는데 거기가면 抬國에한것한 烏龍茶에다 半달모양의 하나는히고 하나는붉은 두개의 菓子를 꺼주엇섯다. 그러고이집 『에이』들은 이뀌찬고대스럽지아니한 손님들을 마음으로 바겨주엇섯다. 여기가면 或옛날의 그菓子가紅茶에 적어먹든 한개의『마드렌느』菓子가프루—스트에게 그위어린時節의 幸福을 열어주드시 나의 옛날의 幸福을 恢復해줄는지도 몰으는일이다. 이러케 생각하니 나의마음은 갑짜기 性急스러워진다. 왜진작 그런생각을 하지못하고 이런 몸인가.

나는 인젠 內鮮연 아무런 未練도 남기지아니하고 곳 京極으로 접어든다. 京極은 서울이면 本町에 該當하는거리 참말도 만흔사람이다. 사람이 오고간다는 [illegible] 나보다 한고장에서 선당을 보고잇다는것이 더들어맛겟다. 올마올마 조로루 달려잇는 [illegible] 에 남좌남좌한 가개가 사람에 파무처 거이 눈에 띠이지아니할지경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어떠케 되어먹은것일까. 마음만 조금 달리먹으면 나날 卽今 보고 듯는 모든데 낫닉은 옛날의 京都를 찻고도 남음이잇을것을. 射擊場 人形파는집 甘栗파는집 『야쯔하신』파는집 작난감파는집 力餅파는집 또오고 가는 사람 사람의 얼굴 옷—여름 노랑의 婦人옷이 만히 눈에 띠인다. 加茂祭때 [illegible] 가 입는옷이 聯想된다 亦是 京都사람들이 조와할 수 잇는 비치다—탈세 特히여엽하고도 抑揚이 잇한 女性의 말끄트머리 그러고 따락따락고니넘어시 모든 風景의 基調가되고 우리머리 우로합하게로 작우작우 퍼저나가는 나막신소리 하나 치고京都의 個性을 말하지 아니하는것이없다.

그러나 내생각은 이러텐 瞥間도 머물려고하지안는다 나는 사람사이를 휘우적 휘우적 작고 우로 올려가기만한다. 그러나 아무리 올라가고 올라가도 金燕亭은 나타나지아니한다. 確實히本能寺를들어가는入口에서 얼마 올라가지안어 잇서야할것인데—或지나처나하고 다시돌처 내려오며 자세 차차보아도 업다. 그러고 져녁거기얄때하고 생각되는데는 [illegible] 映畫館이 하나 새로 생겨잇다. 나는 消然히 발머리를 돌릴수박게—

그러면 인젠 어델가나. 나는 다시 돌처 사람 사이를 휘우적 휘우적 [illegible] 作 나는 [illegible] 가 [illegible] 것 [illegible]

[illegible] 이京都派出所. 내마음은 여기와서 비로소 고개를 든다. 나는유심히 派出所를 [illegible] 에 [illegible] 무엇을 [illegible] 고잇다. [illegible] 나는다시 이 巡査등뒤에 [illegible] 이우참열려잇는 休憩室을 또 [illegible] 려게 드러다본다. 或옛날의그 田中巡査가 아직도 [illegible] 한 어리석은 마음에서다. 田中巡査라면 그때우리高等學校 [illegible] 치고는누구하나 몰으는이업는 [illegible] 爲生이라면 대소롭지 아니한일에도 한사코 보잡고는 [illegible] 야단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한道樂을 삼앗섯다. 『너이들은 왜밤낫 이리케쏘다니기만 하느냐』 또는 『放歌高吟하는것을 생각해서라도 좀學生答게 [illegible] 게 가저보는것이어떠냐』 또한번더 氣勢가노파지면 『將次 大臣이되고 博士가되여 國家大事를 [illegible] 어게 [illegible] 고 [illegible] 한 너이들이 [illegible] 하는것이 그의 가장 [illegible]

나自身 한번은 이러한데 붓들리고야말엇나. 同伴들과 가치 [illegible] 鋪道를 걸어가다 어쩐 [illegible] 케 혼자 뒤에 떨어지게 되엇섯다. 그때 그떠러진距離를 恢復코저 暫間 사람만은 鋪道에서 내려 車道를 달리고잇노라니 뒤에서 『오이 코라』하는 벼락이다. 同伴들은 모르고 그냥갓나 가고 이이는또요만압에 例의야단이다. 그때는 참할 몸시도 망참스러웟다. 그러나 卽今 萬一 그가 잇섯드면 나는 서슴치아니하고 달어가 握手라도 請하엿스리라. 그러케놧지고외로은마음이다. 그러나 그러면이, 萬一에 이라도잇엇는지 [illegible] 한人間이 이러케 떠따 첫술쩍에야 그이는벌서 [illegible] 卽今쯤은 [illegible] 하여 어떤 [illegible] 의 守衛가되엇거나 그러치아니하면 어떤골목『오뎅야』의 [illegible] 이되지 오릴거다

寸懷 (上)

李軒求

四年만에가 [illegible] 는途中에 마침同行되엇던 金君때문에 暫時咸興에 나렷다 멧번이고 이곳을 그냥車窓밖그로 바라보기는햇스나 정말 咸興땅을밟고成川江다리를 건너보기는 이번이처음이엇다

내린것이 밤이요 그이튼날일즉 다야할車를놋치고 밤車를기다리는동안 나는 하로해를이곳에서 지내엇다 날세가하도추워 興南이라도 가보고십흔것을斷念해버리고 그곳親友의案內로 어느茶房에가안젓다 이집은 天井이모두헙어지고壁에는 『다륜』의 『背信』 『포스터—』 『드뷔—』 『르노아—르』의 [illegible]

『발주만』의 原畵또스러—가더한층이방안을어둡게하는 一面親密까지를 느끼게햇다 나는 물뚝아마이茶房에안저섯스리라고생각되는 昨年여름 M氏의『사아론·보와에—』人인듯한長髮靑年愛好의歌謠에 찰플릴을써 [illegible]

나는다시 새로생겻다는茶房으로 案內되엇다 적은방에 褐色『커—틴』이느려젓고主人인듯한長髮靑年愛好家가 가저오고 그여페서 夫人인듯한분이 두런운 [illegible]

[illegible] 큰듯어갓다 집도相當히크고 設備도쾌된듯한데二層한구석에가안젓다 조곰[illegible]이란 곳이서 [illegible] 이서 [illegible] 면도 [illegible] 다 나는 [illegible] 이안젓는가를 두리번거리며 어둠속에서 눈을껌벅엿다

◇

이러케 咸興의거리를 휘돌고 나는 다시 생각햇다 어디를가도 茶房이잇고 映畫館이 잇고 이따금 내가것는 골목이 서울어느골목을 도닷는듯한 느낌까지 는 淡然히거리를휘도는 나 랏다 그리고 疲勞를 느끼면서 우리가살고 잇는都市가 좀더秘密性과好奇心을繼續도는 수는 업는것일까? 하는생각이 갑잡히 떠올르는것이엇다 아니 이것은 내가지니고잇는 一種의 無感覺狀態가 이러케맹그러지는게아닌가도생각해보앗다. 그리고 인제 純然하든 感情이아주稀薄해진것일까하고 문득마음속으로 뇌우처도보앗다.

좀더우리가安息을느끼는 포근한休息處는求할수업는것일까. 아니이것을 수사로 제마음에求하여야느니곳에서든지 自若해야할일일것이리라

『베베트』 치마를입고 紅茶를 내놋든다 서루든듯하면서 어딘지 외로워보이는風景이다

◇

그다음 우리발거름은 前날밤隣際에서들어 오면서본 『異常한비를氏』에끄을려 明朗劇 [illegible]

『보낸것을聯想하고 暫時微苦笑햇다 그러나 成興에는 이한집밖게 『커피』를 주는집이 업다고한다. 머리를빗는女人이 『스토—브』 여메안저放心한듯 담배를태고잇다 어느浴口의 茶房에안즌듯한 [illegible]

詩壇金屑

(二) 滄東散人

詩를보고女婿를삼다

朴相國元亨의 號는 晩節堂이니 延興君의 子로宣廟朝에生長하여 일지기文科에 올으고 世祖乙亥에佐翼功臣에 錄하고 延城府院君을 封하고 領議政에이르럿섯다.

그때에 南原人尹孝孫이 議政府舍로잇서 朴相國을뫼이기爲하여 새벽에그門아페가서 名啣을드리니 門을지키는사람이 拒絶하되 大監이 아직起寢지아니하섯다하고 드리지아니하엿다 孝孫이 門박게서날이느도록 기다리나 이내보지못하고 飢渴이 自甚하여 집에도라와서 그아들尹孝孫을불러 너발하기를 내가아무技能이업스므로 이러한困辱을 바덧스나 너는마땅히 文學을힘써서 이러한愁辱을 밧지말라고하엿다 그아비와 갓치말을 배워서 孝孫이 名啣을 바다다가 가지고 그뒤에다 詩一首를 썼다

相國酣眠日正高 門前剩刺已生毛 夢中若見周公聖 須問當年吐握勞

이라하엿다 그翌日아침에 朴相國이 起寢하여 門에가서 名啣을드리나 이것을 살펴보지 안코돌려보낸데 朴相國이 이쪽에서 [illegible] 名啣에잇는詩를보고 그잘된것을 칭찬하고 [illegible] 려 물어갈오대 이時를 네가지엇느냐 孝孫이 그제야 살펴보니 [illegible] 자긔 [illegible] 가 몰으다가 그아들 孝孫이 [illegible] 한것이 [illegible] 하엿다 [illegible] 노니다 小人이어찌 敢히그러한 [illegible] 을 爲치다 [illegible] 다이어서 [illegible] 이 [illegible] 에 [illegible] 大臣께 對答하되 [illegible] 明히小人의 子息孝孫의 짓을 것이올시다 하엿다 朴相國이 곳孝孫을 불러보고 [illegible] 를불러 [illegible] 大監尹孝孫의 [illegible] 이女婿를삼엇섯다.

大戲尹孝孫의 [illegible] 寫하고 [illegible] 의 [illegible] 하여 기괴[illegible] 剩의 [illegible] 을 어더서 보는사람의 [illegible] 이르렀다 한다 그러나

金州府尹으로 外出하여 小廚를 衙中에두고 그夫人과가치 戲히 飮食을작만하여 老母께 드리니 사람들이 다그至極한 孝誠에 感服하고 또治行을나라에서 表하여 境內人民이 다 稱頌하므로 成宗께서 特히 嘉賞을 나리섯다 그後에 官職이 大司憲으로 左參贊에 이르렀다 孝孫의 임시기 明廟에使臣으로가서 靈廟의祠로엽을 詳細히 살펴보고 도라와서 成宗께 復命하고 엿자오대 朝鮮의 靈廟에 祭卓이업고 땅에草席을깔고 祭物을 둘러니 자못宗廟의 禮에 合當하나 [illegible] 中國의制度와가치 祭卓을 設하는것이 [illegible] 하여 [illegible] 에 [illegible] 하다 하엿다. 그뒤로 [illegible] 주어서 施行하여 今日까지 遵守하게되엇다.

當選漢詩

金枕 (?) 金炯準

盆梅 (三首之一)

小盆栽得一枝梅 橫出百花頭上開 向月影猶仙女魄 臨風香送謫人盃 偏憐白屋藏春色 不怕寒天撲雪埃 愛爾瓊姿淸且瘦 玩唫日夕興悠哉

(評曰) 通篇淸楚可詠

新刊紹介

▲朝鮮月報 一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 定價三十錢送料二錢 發賣所 京城府榮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番

▲家庭の友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五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振替京城三○○九番

▲紛伊 (詩誌) 池夏榮著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二二 漢城圖書株式會社 定價五十錢

귀의 꽁

亡命한토로츠키 스탈린을反駁

『[illegible]』의 革命의元勳 『레온·트로츠키』는 먼저 墨西哥에서 亡命生活을 하고 잇는데 最近 『트로츠키』 [illegible] 하며 著作에 念이업는 [illegible] 보내고잇는데 最近 『데시코』市의 [illegible] 新聞紙는 一世의 [illegible] 히 『트로츠키』가 얼마 안잇서 蘇聯의 『[illegible]』 獨裁者 『스탈린』을 痛烈히 [illegible] 하는 [illegible] 이라고 써내고잇다 이에關해서 [illegible] 의 [illegible] 에 [illegible] 한 者들은 [illegible] 『트로츠키』는 [illegible] 하엿다 내가 『스탈린』의 [illegible] 를 [illegible] 어떠한 [illegible] 을 [illegible] 나는지 [illegible] 는 [illegible]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트로츠키』는 [illegible] 라고 [illegible] 한다가잇는것을 알수잇다.

○米國의現代美術……④

"高架鐵橫停車場"—소흘·버—맨作

淋病

淋菌完全絶滅法의新完成

三日內服後이면淋菌의無抵抗死로 治療가修了되는驚異의短期療法

淋疾이낫지안는것은 藥다운藥이업는때문

이러타할治療藥이 업는病은 예로부터 그런病에 걸니지안토록 注意하여 豫防에 힘쓰는것이 第一上策일것입니다

淋疾病도 그中의하나로서 [illegible] 운藥이 하나도 업섯든때문에 淋疾을 알는사람으로하여금 淋疾은 한번걸니면 영영못곳치는病이라고 그릇된觀念을 가지게하엿스며 또는 [illegible] 을 다써도 [illegible] 게되지안엇든것은 그누구나 [illegible] 이엇다 [illegible] 하실줄로압니다

淋疾이낫게되는藥을 獨逸이비로소發見해

이러한情勢로 지내오든中에 數年前 獨逸에서 突然히 [illegible] 發見해냇습니다 지금까지에잇든 各國各樣의淋疾藥과는 比할배아닌卓效가잇슴이發表되자 日英米佛의醫學界에서도 그偉效에驚嘆하는同時에 獨逸이發見한藥을模倣하야 製劑하엿슴니다 그러나 그中에서도 佛蘭西만은 獨逸品을模倣하여 製劑하는데에만 끄치지안코研究的態度를 일치안엇슴니다 獨逸의醫藥界를 凌駕하려는 態度를 堅持하고잇던것이엇슴니다 獨逸이 [illegible] 한것을發見하여 [illegible] 하였습니다.

그러나獨逸이또다시 더조흔것을發見해

이러케되고보니 醫學과藥學에 [illegible] 共히 [illegible] 쳐손가락을꼽는獨逸이 가만히 잇슬니가잇겟습니가 그러서 佛國의새로發見한藥을 嚴密히 檢討해보니 自己나라에서맨처음發見해낸藥보다 나은것은事實이나 急性淋疾에만有效하고 慢性淋疾에는 多少의缺點이잇는것이 判明되엇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動機로 今番은 獨逸이또다시 苦心研究한結果 佛國것보다 더나은 慢性淋疾에有效한것을 發見하여 全世界의 治淋界를 革新시키는同時에 發明家로서의 最大名譽인 『노벨』賞이授與되엇든바입니다

이와가는經路를밟어 發見된藥이 卽오늘날 我國을 急性淋疾에有效한佛國式을 본바더맨든 一藥性化學劑와 慢性淋疾에 有效한獨逸式을 본바더맨든 二藥性化學劑를 流行케한始初이오며 淋疾治療에는 이藥이아니면 아니된다할만큼 이두가지의藥이 我國의治淋界를 風靡하고잇는現狀입니다 한 흥보지못하든事實입니다

內服『겐고—루』는 어떠한製法의藥인가

弊社製藥化學研究部에서는 獨佛兩國의製藥方式을 獨自의立場下에서 比較檢討하는同時에 한편으로는 急性淋疾에는 獨逸式製藥品을쓰고 慢性淋疾에는 佛國式製藥品을쓰지아니하면 不便한점이 업지안엇기爲해 急性淋疾에도 慢性淋疾에도 同一한効果를發揮케하려면 獨佛의兩製法을 獨特한方式으로 配合製劑하는것이 兩藥力을相乘作用으로 因해 가장 完全無缺한効果가잇다는發見을하고 嚴密한化學的製造工程下에서 獨創的으로 合成製劑하는데에 大成功한것이 本內服 『겐고—루』입니다

그러면各淋疾症勢에 어떠한効果가잇는가

本內服『겐고—루』는 以上의말한바와가티 獨佛兩國醫藥의功績으로서 이를을 兼치게한化學劑와 거기에다 또世界醫學界의功績으로서 世界醫學의 二大療法이 配合되어잇서 治療効果를 더한층強化케한때문에 急性淋疾을 [illegible] 하야 조끔도 다름업는殺菌力을 體內의一局에 潛伏한淋菌일지라도 强烈한殺菌作用을 하므로 急性淋疾은 服藥三日後이면 淋菌이 업서지고 膿漏의分泌가 속히 적어지게되며 고롬도 完全히 [illegible] 治療의完了를 엇게되고 오래된 慢性淋疾도 淋絲가 속치히 업서지지안는症勢나 其他併發症인 副睾丸炎, 膀胱炎, 攝護腺炎, 尿道狹窄, 膀胱炎等의惡症도 本劑의完全無缺히殺菌되는 化學療法의特効로 무슨藥보다도 最短期間에完全快治케됩니다

三日服藥四日休藥은 速効를더욱速케한다

어떠한病에 어떠한藥을 쓰게되든지 그藥의 量의 [illegible] 을 적게 쓰게되는데 [illegible] 藥을 만히쓴다고 病이速히낫는것이 아니며 또는 적게쓴다고 病이더디낫는것이아닙니다 卽藥은分量을 그病에 가장알맛게쓰는것이 第一빨리낫게되는것을 그누구나 잘理解하실줄압니다

本內服『겐고—루』도 服用治療法에對하야 모든內服로 苦心研究한結果 本劑는藥을 每日服用하는것보다 間隔的服藥을行해주시는것이 더 나의 [illegible] 하오면 藥을 每日每食後에六錠식(一日間十八錠)三日間을 服用해주시고 그다음의四日間은 休藥하시는것이 化學療法의特徵인 摧擇性殺菌力을 最大限度로發揮케하야 速効를 더욱速케하는것이올시다

副作用은絶對로업다

本內服『겐고—루』는 化學療法劑로서의 微妙한摧擇性殺菌力이 體內에서 最大限度로 長時間을持續發揮케하엿스되 生體各器官에는 何等의副作用이 小毫도無함으로서 絶對安心服用이되는藥입니다

注文은빨리하십시요

本內服『겐고—루』는 朝鮮全道에서도各有名한藥房이면 全部販賣하고잇사오니 指名買入하시와 服用治療해주시되 近處藥房에업거나 品切로因해 買入不能하신때에는 左記總代理店本舖로 振替나 或은爲替 또는 代金引換便으로도 直接注文해주시면 至急發送해드림니다

藥價

一쿠—루 (一淸藥分) 五十四錠入 一圓五十錢

二쿠—루 (二淸藥分) 百○八錠入 二圓八十錢

四쿠—루 (四淸藥分) 二百十六錠入 五圓三十錢

病院大量用 五百錠入 十二圓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一九番)

最高級純正新治淋化學衝擊療法劑

內服 겐고—루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006480

◆辭典拾冊 一圓五十錢 合本の各分冊は四十錢

緊急分處 大投賣斷行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字くず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特別景品 無代進呈 模範日記

緊急分處 大投賣斷行

國民中學講義錄

▲左の國民中學全科講義錄十二卷二十二冊の合本を今回特に只の二圓二十錢で投賣す

立身出世は先づ中學卒業から!

▲小學卒業後上級學校へ行けぬと失望して悲觀する事はない

中學全科卒業十二卷十二冊合本を只の二圓二十錢に投賣す

手紙上手は立身出世が早い!

▼出征兵士慰問の手紙を始め其他手紙の事なら何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實用新案手紙大辭典 (不向返金)

一圓三十錢 送料十五錢

景品進呈 いろは引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大阪市東淀川區西町四 (電話北二九一七番) 合資會社 國民書院日報係 振替大阪五壹六貳壹番

發賣元

殖銀의純利益 三百十四萬圓

(上) 於總會席上林頭取演述

十五日殖銀總會席上林頭取의營業狀況演述內容은如左하다

株主諸位 今日玆에 通常株主總會를開催하고 第四十三期營業報告其他의 承認을求함에 當하여 恒例에 依하여 同期中에 잇서서의 經濟界의推移와 當行業務의狀況에 對하여 그槪要와 所見을 말하여 參考에供하려한다 周知하는바와가치 支那事變은 皇軍의 光輝잇는 戰果裡에 蔣政權을 徹底的으로制壓하고 他方東亞新秩序의 建設은 着着 其步武를堅固히하고 잇는것은 感激하여마지안는바이다。 이와가치 戰果의 擴大及 新秩序建設事業의促進이 國家總力의 發揮에依한것은 勿論이며 日本의經濟狀勢는 資金의統制로부터 物資의生産配給 消費의統制로至하여 時局中心主義로 擴大强化되엇는데 施策의中心이 되어잇는것은 다시 말할것도업시 公債의消化 生産力의擴充 貿易의改善等으로서 時局의 進行에伴하여 物價抑制와 가튼것도 當面의重大問題로서 登場하게된것은 周知하는바와가치다

官民 協力一致하여 善處한結果 本邦의經濟界가 大體로 順調로운 成績을 어든것은勿論 昭和十四年中의 公債消化高는 四十七億九百萬圓의 巨額에達하여 同年發行高에對한 比率은 八割九分二厘에 當하며 前年에比하여 一分七厘나 向上되엇다 本期中의 事業計畫資本은 二十七億七千五百萬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여 八億三千三百萬圓 四割二分七厘나 增加되엇고 當期發行高는 三十八億五千二百萬圓으로서 前年同期에比하여 八億九千五百萬圓 即三割二厘나 增加되어 實業界의 改善도 顯著한 것이엇다。

內外事業界는 當期의 經濟狀勢에 順應하여 大體로 好調로운 狀態를 持續하고 公債의消化 事業資金의 調達等에 不少히 貢獻하게되엇슴은 다시말할것도업다 이로因하여 當期中에 잇서서의 公社債株式의 拂込高는 四十五億一千萬圓에 達하여 前年同期에 比하여 二億八千六百萬圓 即六分八厘이나 增加되엇고 銀行營業의 預金이 가튼것도 相當히 消化되엇다。

當期 朝鮮의 經濟界는 農業方面에 不少한 旱害의 影響을 비덧스나 時局下 一般産業의 好調와 當局의 救濟施設의 進行과相伴하여 大體로는順調로운 推移를 보엇다고 말할수잇는바이다 即 降雨가 不順하여 中部以南地方은 稀有의 旱魃로되고 畓의 灌水가 不足[illegible]

水産 方面에잇서서도 漁獲은 依然히 好況을 [illegible]

統計 에依하여보면 今期中의 朝鮮貿易은 [illegible]

朝鮮 의 金融界는 此等 狀勢를 [illegible]

燐灰石開發會社

七月頃에創立豫定

無盡藏한鑛區開發

【釜山電話通信】 新興燐灰石開發會社 設立을 [illegible] 十五日午後 釜山에서 [illegible] 燐灰石의開發은 朝鮮에서도 가장緊急을 要하는 [illegible] 하리라한다

大鐵鑛區發見

【海州十四日發同盟】 當地에 [illegible]

殖銀總會

年九分配可決

殖銀에서는 十五日午前十一時十分부터 第四十三期 定時株主總會를開催하고

一、當期諸決算案承認件

二、同期利益金處分案議決件

三、定款中變更(件商法改正에伴한것)

을 附議하여 모두原案대로滿場一致로 可決하엿는데 利益金處分은 如左하다(單位圓)

當期純益金	三、一四〇、[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當期利益金	[illegible]
缺損補塡準備金	[illegible]
配當平均準備金	[illegible]
特別積立金	[illegible]
役員賞與金及交際金	[illegible]
舊株配當金(一株에二圓二十五錢年九分)	[illegible]
新株配當金(一株에五十六錢二厘五毛年九分割)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貯銀預金積金

貯銀의一月末預金積金現在高는 如左하다 (單位千圓)

▲普通貯金一八、〇三三▲特約貯金一一、九六九▲據置貯金一四、八七四▲定期預金四七、〇二九▲定期預金三九二▲合計九二、七九九

農業基礎資材鰮粕 一擧三圓餘値上

農林省의不徹底政策이原因

(一貫) 十二圓五十錢申請

油肥聯에서는 別項와가치 鰮粕價格의 協定價格을 一貫十二圓五十錢으로 申請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右價格은 九·一八價格의九圓二十五錢에 比하여 三圓二十五錢의 引上이고 去年同期에比하면 四圓三十五錢 即約五割八分의 値上에相當하다 鰮粕은果樹蔬菜等의 園藝栽培에不可缺인 肥料이고 調査肥料로서도 需要가만흔데 如斯히 斷續的으로値上을하고 今回와가치 一擧三圓二十五錢이나 引上하여 申請한데對해서 總督府當局이 어떠한 態度로나올는지는 注目된다 即現下의 內地方面의 市價가十三圓以上이고 이와步調를 마추는點에 잇서서는 不當치안흐나 어잇슬것이고 다시 內地農林省의 態度도 注目되는데 現在 低物價政策의 見地에서 農業의基礎資材라고 할만한 肥料를이러케値上하는것은 相當히 異論이 잇슬것이고 다시 內地農林省의 不徹底한 政策에 依하여 粕價가 十三圓가량으로 되어잇는以上 이價格으로보아 朝鮮의粕價를 抑壓할 수는업슬것이다

油肥聯委員會 協定價格決定

油肥聯에서는 十五日午前十時부터 京城호텔에서 委員會를開催하고 鰮粕價格問題、有機肥料會社의 參加問題를 附議하엿다 現在內地에잇서서의 鰮粕市勢는 十三、四圓가량으로 取引되고잇는데 朝鮮은九·一八價格이 九圓二十五錢으로 되어잇는 關係上 內鮮間에 價格의 顯著한不均衡을 招來하고잇스므로 그것을是正코자 朝鮮側에서는 協定價格을申請하기로 決定하고 有機肥料會社에의 參加如何는 二十六日의 評議會에서 協議할터이다

水産皮革工場計畫案

水産開發重役會에서承認

朝鮮水産開發會社에서는 十三日午後一時부터 府民館에서 取締役會를開催하고 左記議案을附議하여 原案대로 承認決定하고 同五時에 散會하엿다

一、水産皮革工場事業計畫案의件(海豚、鮫、材料로하는 皮革代用品製造工場을 釜山에新設할것)

二、京城營業所 大連、安東出張所開設의件

三、淸津、漁大津工場擴充의件

四、手繰船二隻建造의件

五、其他

生고무內地流出 朝鮮內需給窘塞

殖産局에서制限取締

生고무의配定減에依하여 朝鮮內의 고무靴 其他고무製品의製造高는 減少되는데 最近右供給減에다가 內地에 移出하는者가 激增되어 朝鮮內 特히南朝鮮方面의 고무靴類의 需給은 去益窘塞의度를 加하기에 至하엿스므로 總督府에서도 需給을 調整키爲하여 適當한處置를 考慮中이다 右取締는 對內地關係이니만큼 移出을 制限할 法的根據가 업고取締가 困難하나 殖産局으로서는 遠反業者中 製造業者에는 生고무의 配定을 削減하고 販賣業者에는 生産業者로부터의 販賣數量의 配定減等에 依하여 實效的措置를 講究할意向이다

外米五萬餘石 釜山에着荷

食糧不足地에配給

內地에의 朝鮮米移出代身으로 輸入키로 決定한 外米第二回分 五萬二千五百六石은 曲津丸으로 十四日朝釜山에 着荷한바 이로써 第一回輸入分 五萬五千五百五十五石을 加하여 豫定量十萬八千六十一石의 輸入이完了되고 農林省의 操作量五만..., 國內食糧不足地에 配給키로되엇다

全國製粉工組創立

【東京電話同盟】 設立準備中의製粉工業組合創立總會는 十四日午後二時부터 工業俱樂部에서 開催하고 關係製粉十五社 代表出席下에 組合長 以下役員選擧를 한 結果 如左히 決定 理事長에는 日本製粉(代表取締役中島義治氏)이 當選되엇고 理事日本製粉 大阪製粉 日東製粉 昭和産業 東福製粉 增田製粉 幹事日本精米 鈴木製粉

日本油肥 統制會社

三月中에創立

【大阪電話商通】 朝鮮鰮油聯에따라서 內地魚油肥를 統制하기爲하여 農林省에서는 其組合의結成을慫慂하고잇던바 오는三月十五日에 創立總會를 開催하기로되엇다 同組合은 內地産魚油肥及魚粉의出荷를 統制하고 이와同時에 水産組合聯合의 共販關으로서 資本金五百萬圓의 日本油肥統制株式會社를 設立하고 同社를通하여 有機肥料會社에委託販賣를 시키기로되엇다

東華産業創立總會

朝鮮及北支物産의 貿易及委託販賣其他農産品加工製造等 業으로하는 日支合辦의 東華産業株式會社(東亞産業의改名)(資本金二百萬圓、四分의一拂込)設立에 對해서는 前부터 四萬株全部를 公募中이던바 이미申込株式數가 三千株나 超過되엇스므로 發起人其他關係者사이에서 協議한結果 按分配定하기로決定하고 오는二十四日까지 右拂込을 完了하여 來十五日府內長谷川町 富士電氣貿易協會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기로 되엇다 社長及專務其他重役은 目下總督府當局에서 人選中인데 右會社의 産婆役을한 朝鮮貿易協會 影山理事는 十六日午後四時三十分 京城驛發「大陸」으로 北支에건너가서 天津、北京其他現地에잇는設備等에對하여 連絡을取하기로되엇다

物價委員會擴充

民間有力者를人選中

總督府物價調整課의 開設에伴하여 低物價政策의根幹인 戰時適正價格(公定價格)의設定은 一層促進될것이 期待되나 이와同時에 殖産局에서는 物價委員會의 機構改革에 着手하여 本委員會와專門委員會우에 다시 關係局長을 委員으로하는 總務委員會를 設置하기로되엇다함은 旣報한바이나 이機會에다시 本委員會와 專門委員會의內容도 强化하기로되어 民間의有力한 實務家와 學識잇는人士를 多數委員으로委囑하여 實情에 適合하는價格決定에 官民總力을 發揮하기로 方針을 決定하고 目下關係局間에서 愼重人選中이므로 大野政務總監의 決裁를어더 二月中에는 全面的機構改革이 實現될터이다

外國爲替基金 運用成績

大藏省서發表

【東京電話同盟】 大藏省發表＝外國爲替基金의 運用狀況에 對하여 十二日의 豫算總會에서 說明을하엿는데 今年一月末現在의 數字를 發表하엿다

◇外國爲替基金勘定創設以來

內藏相은 旣報와가치 十三日大藏省은 如左히 [illegible]

綿絲와 綿織物 諸費用 中間業者負擔

紡績工組에서通牒

綿絲、綿織物의 販賣公定價格에 對하여는 지난十日 總督府에서 發表하엿는데 右公定價格은 工場渡로 되어잇스므로 朝鮮紡績工業組合에서는 이지음 朝鮮聯合會에 通牒을發하고 從來生産者側에서 負擔한 左의 諸費用을 中間業者側에 負擔시키기로 되엇다

一、運送保險料 一、引換滯分代 一、艀出賃、持込賃及그에附帶한一切의費用

孟買銀塊市勢

【孟買十三日發商通】 孟買銀塊市勢는 最近銀氣配를 빰고 現物市勢는下落되어 그結果 現物市勢는 先物에對하여 프레미암擴大

프레미암擴大

스타 이스(?) [illegible]

運用成績(單位千圓) 利用總額 五七六、三二〇 返濟額 三四九、四七七 現在利用高 二二六、七四六

래미암을付하고 現物의프레미암은 數日間에 直하여 擴大되고잇는데 十三日에도 現物은五六留比八分之一 一個月先物은 五三留比四分之三 三個月先物 五四留比十六分之一을 唱하여 現物의先物에對한 프레미암은依然二留比餘에達하고잇다

地下水積極調査

◇淸水氏에게依囑進行

農林局에서는 關東州廳西本技師의 關係에 依하여 朝鮮에서도 地下水의 利用을 반드시絶望이아니고 研究如何는 相當한 好果를 거들 希望이 잇다는 報告에 鼓舞되어 地下水를 積極的으로 調査하기로決定하고 今後 이方面에 取할方針을 强化하엿다 그리고 元北支顧問官으로 斯界의權威者인 淸水本之助氏를 招聘하여 調査의 指導에當케하기로 決定하고 新京滯在中의 同氏에 交涉한結果 四、五日中에 朝鮮에 오기로되엇다 農林局으로서는 西本氏、淸水氏의 意見을 徵하여 今後에 地下水調査方法을 決定하는外에 專혀 淸水氏의 指導下의 調査를 進行시키기로 되엇다

土地思惑嚴戒

住宅地造成地區·區域整理地區

京城府에서檢討!

京城府發展의 大綱을 決定하는 都市計畫令의 施行에 伴하여 土地思惑이 甚하여 昨年中에 잇서서의 東大門、淸凉里、往十里、黃金町六丁目間、西大門、新村間의 發展途上의 各區間은 坪每一坪에 五十圓乃至八十圓으로 三、四割이나 高騰되엇는데 右에 對하여 京城府에서는 土地思惑賣買는 今後의 住宅難緩和對策上 住宅適成 區劃整理等에 全般的으로 影響이 미치는 것이라하여 重大視하고 잇다 現在 着手豫定의 一團地 住宅地造成地區及 區劃整理地區를 再檢討하기로되어 利用土地 一千萬坪의 開發에 注力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京城府內의 最近의 地價를 보면 本町一丁目의 坪一坪七百圓을 最高로 中等地는 旭町의 百圓 下等地는 龍江의 十四圓이 市勢로되어잇서 前年에比하면 約一割의 騰貴이며 東大門外 新村 往十里町等의 騰貴는 都市計畫의 發表와 同時에 郊外發展地로 集注되어 土地價格이 暴騰되엇스므로 住宅不足으로因한 京城府의 土地投資에 依한資金의 動向이 旺盛해진것으로 보이나 十五年度는 單皆影響으로 金融機關의 資金貸付도 警戒되어잇서 一方 地方으로부터의 土地買付도 警戒되어잇는 情勢下에잇스므로 土地思惑은 念慮할程度가 아니라고보는側도잇다

生産力擴充에協力

―不足物資配給圓滑을圖謀―

廿日於大阪懇談會期待

朝鮮內不足物資의 配給圓滑을 圖謀하고저 總督殖産局長、井坂商工課長、鹽田鑛山課長은 二十日新大阪호텔에서 阪神地方中堅商工業者와 會同하고 物資供給에 對한 協力을 懇請하기로되엇는데 朝鮮側으로서는 不足物資의 供給뿐아니라 現在電力、石炭、勞動力等 各基礎條件에 深刻한困難을 밧고잇는 內地의中小業者가 朝鮮에 와서 生産에 從事하는것이 朝鮮의 工場設備를 參加시켜 食糧을 ... 弱한朝鮮의 中小商工業의 振興에 資하며 兵站基地朝鮮이 切實히 要求하고잇는 生産力擴充에 協力하기를 要望하고잇슴으로 今般懇談의成果는 오히려이方面으로 相當히 重要視된다

簡易保險支拂狀況

朝鮮簡易生命保險의 一月中에 잇서서의 保險金支拂高는 三千五百九十一件、四十三萬五千八百九十二圓三十六錢으로 其內容은 契約成立後 一年未滿으로 普通病死에依한 一部支拂이 七百二十八件、四千九百三十四圓二十四錢 二年未滿으로 普通病死에依한 半額支拂이 七百二件 六萬二千九十四圓九十二錢 一年經過死亡全額支拂이 千四百三十一件 二十五萬七千四百四十五圓八十錢 傳染病又는 災害에依한 死亡으로 全額支拂이 百十二件 二萬九千四百八十七錢 契約期間滿了에依한 全額支拂이 六百十七件 八萬二千四百四十二圓七十錢으로 되어잇다

丸計解散總會

三月七日開催

過般洗會된 鮮滿運輸株式會社의 解散總會는 來三月七日에다시 解散總會를열고 解會決議키로決定하엿다

大麥裸麥精麥 販賣價格實施

【東京電話同盟】 第三十七回中央物價委員會總會에서 答申한大麥裸麥及精麥의 販賣價格은 十五日附商工·農林兩省告示로써指定實施된다

市俄古小麥市況

【市俄古十四日發商通】 支拂의買調와 粉側의買物로 市況은 堅調를呈하고잇다

寸鐵

▼…君島新鮮銀副總裁와는 全然다른 「타입」。

▼…公森氏는 銀行을 「店」이라하고 番頭風으로 初印象을 마뎟는데 君島氏는 버티는 품이 거북할程度。

▼…昨日記者團과 初會見에잇서 記者團을 一喝。

▼…朝鮮은 처음이라 感想을 뭇고 자주 묻는 記者에 對하여 「처음인데 무엇을 몰라」 한사람이 點呼、이런바람은 독독한탓인지 건방진탓인지。

▼…「浦島太郞이 龍宮에가섯」 이라고 稱讚인지 險口인지。

▼…「이봄에는 英語이니 定義를 잘定할必要가잇다」고 池田元藏相의 議會答辯을 暗誦햇더모양。

▼…物과돈의均衡이 破壞되어 물레가 터지지안는 때 一矢를放하니 「무엇이돈이고 무엇이物件이냐」고 비뜨러지게 反問。

▼…必要以上으로 通貨가膨脹되면 인플레가 아닌가 해도 「어떠한것을 必要한程度라 하느냐」고。

▼…히야까시調로 바더넘기는품이 압마않았습니다(?) 解釋해도 정작치안코 眼下無人格。

▼…「汽車칸에서나 茶집에서나 떠들소리지 簡單히 通貨論을 말해서는안된다」고 大喝한방。

▼…日銀文書局長어떤 내가 알지 너의들이 무엇을아느냐는 수작。

▼…手腕은두고 보아야알겟거니와 初印象은 그리조치못한 것이 遺憾。(寫眞은君島氏)

東城物價 十五日

(市場市況 [illegible])

株式 昻高

鐘新先驅

今日의市勢 十五日

前場 上述 今朝는東新二低인 百三十八圓二 鐘新一低인百六十七圓一 [illegible]

動機來近迫?

[illegible]

東京株高原因

【東京電話】 [illegible]

現物保合

[illegible]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illegible]

延取 依然不成 休商

前場不成 今朝亦是無賣買

後場同調 後場도 依然한 沈默商狀이엇다

海外經濟 十四日

[illegible]

今日財界 十五日

◆米穀 (京城、公定價) [illegible]

◆株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銀行券 十四日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十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四分一 以上朝鮮銀行賣

株式

[illegible]

棉花

[illegible]

綿布

[illegible]

生糸

[illegible]

鰮油粕·麥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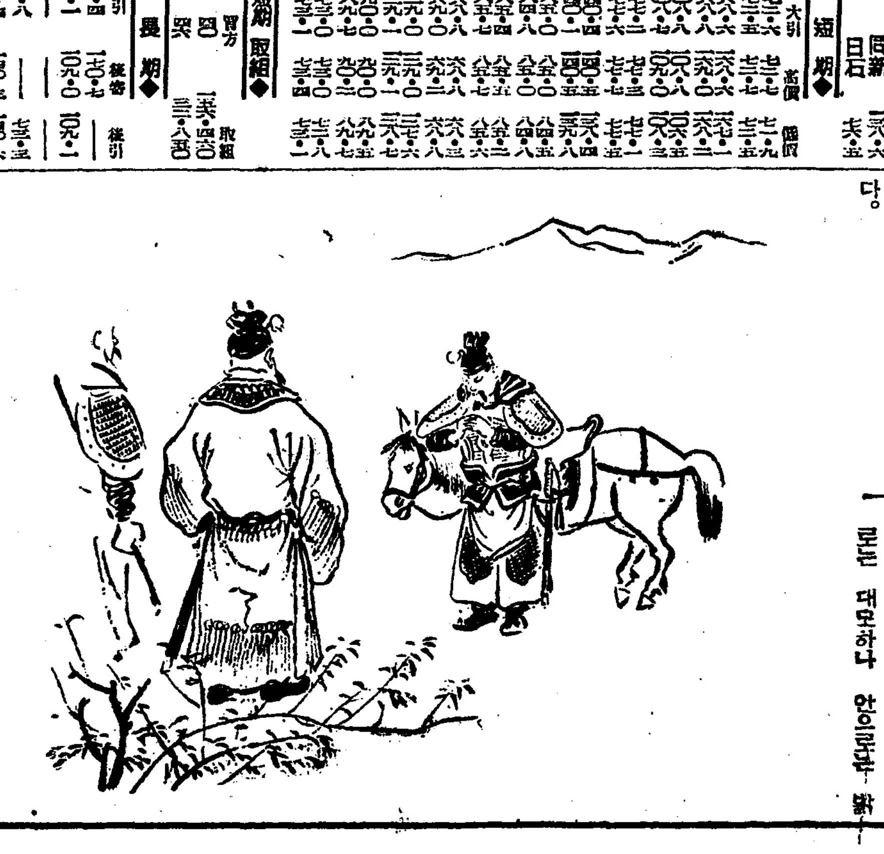
[illegible]

三國志

呂布의最後 (一)

【100】

韓雲譯 龍超 熊畵



조조가 석히 항읍새 호군이 장수의 뜻는사에게 매하였다 는 소식을듣고 몸을돌려 구원하라 하다가 장수의 군사가 미 불러간고로 멈추더니 매번 군사가 보하되

『만일 산뒤에서 한떼의 군마가 나와서 길을끊지 아니하엿더면 우리군사가 다 사로잡혓스리다』

조조가 급히 그사람을 무른대 그사람이 창을거두고 말에 나려 조조에게 절하고 뵈이니 그사람은 지위주랑장 이통(李通)이니 강하평춘(平春)사람이라 조조가 뭇되

『어데서 왓는뇨』

『근사에 여남을 지키더니 승상이 장수와 유표로 더부러 싸운다는 소식을듯고 특별히 와서 접응하엿노라』

조조가 기뻐하여 이통으로건 공후(建功侯)를 삼고 여남의서 쪽 지경을 지켜 유표와 장수를 막으라하니 이통이 사례하고갓다。

가 처고자하나 힘이 멋지못하니 어찌하리오 곽가가 말하되

『항우(項羽)가 고조를 대적지 못한것은 공의 아는바라 고조는 오직 지혜로 이기고향 우는 비록 강하나 마침내때 한지라 이제 원소는 열가지 패할것이잇고 공은 열가지 길것이 잇스니 원소의군사가 비록 강하나 속히 두려울것이 업나니 원소는 쓸데업시 번거한 허례(虛禮)가 만하고 공은 자연에 맷기니 이는도(道)로 이기는 것이오 원소는 거슬려 움지기고 공은 순하게 거느리니 이는 의(義)로 이기는것이오 환제와 영제때부터 정사가 너무 너그러운것으로 잘못되엇거늘 원소는 지나치게 너그러운것으로 접제하고 공은 규률도 거느리니 이는 다스리는것으로 이기는것이오 원소는 밧그로는 너그러우나 안으로는 끄리어진척을 만이쓰되 공은 박그로는 대모하나 안으로는 밝다。

조조가 허도에 도라와 표를 올려 손책의 공잇는것을 아리어 손책으로 토역(討逆)장군을 삼고 오후(吳侯)를 봉하여 사자를 강동에 보내어 조서를 전하고 하여금 유표를 막으라하엿다。

조조가 승상부에 도라오니여러관원이 모인지라 순욱이 조조에게 뭇되

『승상이 천천이 행하여 안중에 이르매 어찌반드시 적병을 이길줄을 알앗슴니까』

『적이 물러갈길이 업스면 반드시 죽도록 싸울지라 차 그러므로 천천히 유인하야가 만히 도모하므로 반드시 이길줄을 아랏노라』

순욱이 절하고 감복하엿다。 곽가가 드러오매 조조가웃되

『공이어찌 저롭게 오느뇨』

곽가가 소매에서 편지하나를 내어 조조를 주며

『원소가 사람을보내어 승상에게 편지를 하얏는데 군사를 내어 공손찬을 치고자 하므로 특별히와서 양씨와 군사를 빌는것이라』

하니 조조가 말하되

『내가 드르니 원소가 허도를 도모하고자한다 하더니 이제 내가 도라오물보고 또 다른 말을 내엇도다』

하고 편지를 떼어보니 글뜻이 교만한지라 곽기에게 말하되

『원소가 이가치 무례하니 내

고 사람을 인재로쓰니 이는 도량으로 이기는것이오 원소는 꾀가 만하되 결단이적고 공은 계교를어드면 곳 행하니 이는 꾀로 여기는것이오 원소는 온전히 명예를 위하고 공은 지성으로 사람을대접하니 이는 덕으로 여기는것이오 원소는 가까운데를친하고 먼데를 소홀히하되 공은 생각이 두루하지 아니하는데가 업스니 이는 지혜로 이기는것이오 원소는 참소를 듯고 혹하여 어지럽되 공은 참소가 드러오지 못하니 이는 밝은것으로 여기는것이오 원소는 올코 그른것을 분간하지 못하되 공은 법도가 업하고 밝그니 이는 문(文)으로 이기는것이오 원소는 헛된 세를 베풀기를조아하고 병법의 종요한것을알지못하되 공은 적은것으로만한것을 이기어 군사 쓰는것이 귀신가트니 이는 무(武)로 여기는것이라 공은 이러한 열가지 이길것이 잇스니원소를 파하기에 어려울것이업스리라』

조조가 우스며 말하되

『공의 말슴을 내가어찌 당하리오』

순욱이 말하되

『곽봉효의 열가지 이기고 열가지 패한다는 말이 저하나의 매련한 소견과 서로 맛도다 원소의 군사가 비록만하나 무엇이족히 두려우리오』